

겨울의 歲時風俗



전자거래표준과 전기주사보 박종수
02)509-7403 parkjs@ats.go.kr

세시(歲時)는 한 해의 절기나 달이나 계절에 따른 때를 말하고 세시풍속(歲時風俗)이란 예로부터 해마다 관례(慣例)로서 행하여지는 전승적 행사, 즉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慣行)되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며, 또 옛 문헌에 보이는 것 중에는 이름만 남아 있고, 현재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한(韓)민족에 의하여 발생되고 전승되어 오는 고유(固有)의 것도 많이 있지만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전래된 것도 있고, 또 이 외래의 것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韓)민족의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만물의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이 다가옴에 지난 겨울의 대표적 세시풍속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겨울은 동지에서 입춘까지로 그 사이에 立春·小雪·大雪·冬至·小寒·大寒의 節候가 있으며 俗節로는 11월의 冬至와 12월의 臘日과 除夕이 있다.

(1) 冬 至

동지는 11월에 든다. 그래서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지는 하루의 해가 夏至로부터 차츰 짧아지기 시작하여 극한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한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一陽이 생하다」 하여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 속절로 삼았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亞歲라고 하여 어느 집이나 팔죽을 쑤어 먹으며, 지금 정월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고 하는 것처럼 동지에 팔죽을 먹고도 「한 살 더 먹었다」 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에 동지로써 설을 삼았던 遺風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즉 『易經』에서 太陽의 시작을 冬至로 보고 復卦로 11월에 배치하였으며, 따라서 중국의 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정하였다. 그리고 唐나라의 宣明曆도 十一月甲子朔夜半 冬至를 曆의 시작으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건국 이후 신라에 이어 唐의 宣明曆를 그대로 썼으며, 忠宣王 원년

(AD.1309)에 와서 元의 授詩曆으로 改曆할때까지 宣明曆을 사용한 것을 보면 늦어도 이 때까지는 동지로서 설을 지낸 것으로 짐작한다.

옛날에는 동지가 되면 觀象監에서 다음의 曆書를 만들어 宮中에 바쳤다. 이 曆書는 노란색으로 裝幀한 黃裝曆을 제일로 치고, 그다음에 靑裝曆과 白裝曆을 치는데, 왕은 이 曆書 「同文之寶」라는 御璽를 찍어 문무백관과 각 官衙에 나누어 주었다. 한편 각 관아에서도 동지가 되기 전에 미리 종이를 준비하였다가 觀象監에 인쇄를 부탁하여 職級에 따라 차등있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그 曆書를 고향의 친지나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 쓰게 했다. 특히 吏曹의 胥吏들은 告身을 써 준 사람들이 벼슬을 하게 되면 賞參錢을 받는데, 그 답례로 동지에 靑裝曆을 한 권씩 증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금도 동지에 冊曆이나 달력을 선물하나 俗談에 「시골에서 생색내는 것은 여름에는 부채요, 겨울에는 책력이라」라는 말이 있다.

한편 內醫院에는 官桂· 후추· 설탕· 꿀을 쇠 가죽에다 섞어 삶아 기름에 엉기도록 만들어 煎藥이라 하여 진상했으며 각 관청에 이를 만들어 나누어 가졌다.

(2) 臘 日

12월에 臘日이 있다. 이 납일을 중국의 夏나라에서는 '嘉平', 은나라에서는 '清祀', 周나라에선 '大蜡'라 하던 것을 漢나라에 와서 '납일'이라 하였는데 臘은 獵으로 짐승을 사냥하여 百神에 제사하던 것이 나중에는 조상에게 제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납일을 중국의 漢나라에서는 동지 뒤 세 번째 戌日로 정하였고, 魏나라에서는 辰日로, 晉에서는 丑日로, 唐은 貞觀禮에는 寅日至辰日로, 開元禮에는 辰日로, 그리고 宋나라에서는 戌日로 정하여서 시대마다 각기 그 날이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는 唐의 貞觀禮에 따라 12월 寅日에 新城北門에서 蜡祭를 지냈고, 고려의 文宗은 宋나라를 본받아 戌日으로써 臘日을 정하였지만, 대체로 大寒 前後 辰日로 납일을 삼아 왔는데, 조선조에 와서 동지 뒤 세 번째 未日로 납일로 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李暉光은

중국의 漢나라 蔡邕의 설을 인용하여 “靑帝는 未臘으로써, 赤帝는 戌臘으로써, 白帝는 丑臘으로써, 黑帝는 辰臘으로써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未로써 臘을 삼았으니 그것은 東方이 본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동방이므로 방위는 東에 해당하고 東은 五行에서 '木'에 해당하고 본은 五色에서 '靑'에 해당하니, 곧 靑帝의 未臘으로써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납일에 약을 만들면 1년 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옛날 內醫院에서는 여러 가지 丸藥을 지어 임금에게 진상하였으니 이를 臘藥이라 했다. 임금은 이 臘藥을 다시 近侍와 至密內人들에게 나누어 주어 병을 고치게 하였다. 臘藥으로 중요한 것은 淸心元[淸心丸]· 安神元[安神丸]· 蘇合元[蘇合丸]등인데, 淸心元은 정신장애에, 安神元은 열을 다스리는데, 소합원은 吐瀉霍亂에 효험이 크다

고 한다. 특히 淸心元은 '神丹'이라 하여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유명했다고 한다. 正祖 14년 (AD.1790)에는 濟衆丹과 廣濟丸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蘇合元보다 효과가 더욱 빨랐다. 이것은 모든 醫門에 나누어 주어 軍士들을 치료하는 데 쓰게 했다. 한편 耆老所에서도 臘藥을 만들어 耆老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官衙에서도 만들어 서로 선물로 주었다.

(3) 除夕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설날 그믐날을 '除夕'이라 한다. 속칭 '작은 설'이라 하여 묵은 歲拜[舊歲拜]를 하니, 옛날 조정에서는 朝臣 二品 이상과 侍從臣들은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묵은 해의 문안을 올렸으며, 민간에서도 연소자들이 친척어른들을 찾아 묵은 세배를 하느라고 이 날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에 등불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濟州道에서는 시집간 딸들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척집에 가서 세배를 하는 것을 '忘年過歲'라 한다. 全羅道 珍島 지방에서는 설을 앞두고 '뭇뻬기'라 하여 지손들이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음식을 차려 가지고 '名日'이바지를 한다. 이 모든 것이 제석의 묵은 세배의 殘俗이다.

제석 다음날이 설날이다. 그래서 제석에는 설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니 이를 歲饌이라고 한다. 이 세찬은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 또는 차례를 지내는 집과 안 지내는 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흰떡은 옛날에 멥쌀가루를 찌서 안반 위에 놓고 자루 달린 떡메로 무수

히 쳐서 길게 떡가래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떡방앗간에서 기계로 뻬다. 이 흰떡을 알뜰하게 동전같이 썰어 장국에다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후춧가루를 친 것을 떡국[餅湯]이라 하니, 이것은 정월 설날 차례에도 쓰고 손님대접에도 사용하므로 세찬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다. 옛날에는 국에 넣어 끓였으므로 溫麵이라고 불렀다. 이 떡국에는 원래 꿩고기를 넣어 맛을 내었지만 꿩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신 쇠고기나 닭고기를 넣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석 하루나 이틀 전에 소를 잡지 못하게 하던 것을 완화하였다. 즉 여러 法司에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던 牌를 회수하고 있다가 설날에는 내어 주니 이것은 백성들이 정초에 쇠고기를 살것 먹으라는 뜻인데, 때로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옛날 제석에는 上司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生雉·전복 魚卵·內浦·柑子·꽃감 대추 등을 선물하며 문안을 하였고 지금은 주로 고기, 생선, 과일, 술 등을 보내서 인사를 한다.

옛날 평안도와 황해도의 명마절도사는 해마다 세찬을 朝官에 보냈으며, 각도의 監司나 兵使·水使·守令도 역시 세찬의 예를 따랐는데, 이를 보낼 때 세찬의 목록을 적은 편지도 함께 보내니 이를 聰明紙라 했다.

또 옛날 宮中에서는 이 날 70세 이상되는 朝官과 命婦에게 쌀과 생선 등을 하사했다. 이 날 內醫院에서는 辟瘟丹이라는 향을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면 설날 이른 아침에 그 향 한 심지를 피웠다. 향간에서는 간혹 잘 만든 빨간 주머니에 이 향을 넣어



서 차기도 했다.

그리고 제석에는 한 해의 마지막 가는 날이므로 그 해의 모든 빛을 청산한다. 그래서 이 날은 빛을 갚고 또 빛을 받으러 다니는데, 만일 이 때 청산을 못 한 빛이 있으면 정월 보름까지는 갚지도 않고 또 갚으라고 독촉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제석날 밤에는 민간에서 다락 미루 방 부엌에 모두 등잔을 켜 놓으며, 흰 사기접시 하나에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도 마치 대낮같이 환하게 불을 켜 놓는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니 이를 守歲라 한다. 이것은

道敎에서 12월 庚申日에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소위 庚申守歲의 遺俗이라 한다. 그래서 제석에는 윷놀이, 옛날 이야기, 얘기 책 읽기 등 흥미있는 놀이로 밤을 새우는데, 전라도에서는 歲鬪라고 하여 鬪牋이나 화투를 치며 밤을 새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야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모두 쏜다」고 하면 아이들은 대개 속아서 잠을 자지 않는다. 간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가 粉이나 쌀가루를 개어 자는 아이의 눈썹에 바르고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하면서 놀린다.

